

로열콘서트헤보 오케스트라, 최희연 & 김영신



CHOI HEE YOEN

세련된 빛을 발하다, 최희연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암스테르담 로열 콘서트헤보 오케스트라의 정예 멤버들로 구성된 스트링 콰르텟이 방한해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공연을 가졌다. 2000년 창단해 활동을 시작한 현악 사중주단으로서 역사와 전통이 비교적 짧아 세계 최정상급의 앙상블에는 못미치더라도 오케스트라 활동에서 다져진 앙상블 기량이 뛰어나 수준 높은 음악을 들려주었다. 이들의 내한 공연에는 서울대 음대 교수로 재직 중인 피아니스트 최희연이 함께했다. 첫 곡으로 연주한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 4번 C단조, Op 18-4>에서 나타난 이들의 특징은 지나치거나 과장이 없는 표현에서 나오는 우아하고 품위 있는 앙상블이었다. 초반보다는 후반부로 가며 앙상블에 안정감이 더해졌으며 4악장에 이르러서는 정제된 음색과 정교한 앙상블이 빛을 발하고 있었다. 두 번째 작품 드보르자크 <현악 사중주 F장조, Op 96 '아메리카'>는 조금 더 친근한 느낌으로 다가왔다. 제1바이올린은 시종 일관 차분하면서도 유려한 연주로 선율을 노래했으며 첼로는 보다 풍부한 감정을 드러내며 음악에 매력을 더해 주었다. 이날 연주의 하이라이트인 슈만의 <피아노 오중주 E 장조, Op 44>에서 피아니스트 최희연은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음색을 수놓으며 사중주단과 호흡을 맞추어갔다. 현악 사중주의 섬세하고 우아한 음색에 최희연이 만들어내는 맑고 색채감 있는 피아노 소리는 훌륭한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또한 최희연은 오중주에 웅장한 기풍을 실어주는 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청중의 환호에 뒤이은 앙코르는 루마니아 출신 바이올리니스트 프루나루의 기량을 선보이는 자리였다. 루마니아 민요풍의 <호라 스타카토>를 연주하며 정상급 테크닉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러나 청중의 반응을 더욱 뜨겁게 고조시킨 것은 뜻밖에도 한국 가곡 <그리운 금강산>과 <님이 오시는지>였다. 서양의 사중주단과 한국의 피아니스트가 오중주로 편곡된 한국의 가곡을 연주하며 이토록 청중의 가슴을 음악적 감동으로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다. 로열 콘서트헤보 사중주단과 피아니스트 최희연의 만남은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이들의 연

편안하며 힘찬 무대, 김영신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암스테르담 로열 콘서트헤보 스트링 콰르텟의 내한 공연이 전주 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김영신 교수와의 협연으로 열렸다. 베토벤 <현악 사중주 4번>은 진지한 연주로 음과 소리 하나하나에 집중된 앙상블은 일품이었다. 이어진 드보르자크 <아메리카>은 전체적으로 훌륭한 연주였으나 다른 파트에 비해 제2바이올린의 볼륨이 적은 것이 다소 아쉬웠다. 김영신이 함께 연주한 슈만 <오중주 E 장조>는 현악 사중주와 피아노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낭만을 담아 전형적인 슈만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현악 들 속에 전혀 위축됨이 없이 당당하게 피아노가 리드하는 모습을 보고 인심이 되었다. 김영신은 대학 재학 중 도독해 최고 연주자 과정을 마쳤다. 특히 이날 밤 그가 만들어낸 슈만의 선율은 어디에 내놓아도 전혀 손색이 없는 편안함을 들려주었다. 1악장 브릴란테의 힘차고 화려한 주제에 이어 피아노의 온화한 가락과 우아한 제2주제의 조화는 피아노를 충분히 알고 있는 슈만의 기법이 아닌가 싶다. 피아노를 중심으로 한 현악의 조화는 1악장만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2악장에서는 힘찬 행진곡풍으로 연주되다가 갑자기 템포가 바뀌는 부분에 당김음으로 이어지는 현악의 대화가 약간 불안했지만 숙련된 연주자들의 노련한 면모를 볼 수 있었다.

3악장에서는 빠르게 움직이는 스케일의 가락에 각자 모두 열심히 연주하는 모습에 빠져 있었다. 4악장은 이 곡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처럼 장대하고 힘찬 연주로 전체를 마감하는 작곡자의 의도를 잘 살려준 악장임에 틀림없었다. 피아노의 섬세한 음형을 연주하는가 하면 비올라의 부드러운 주제에 이어 각 악기별 반복되는 응답은 정말 앙상블의 절정을 이루었다고 느껴진다. 로열 콘서트헤보 스트링 콰르텟과 피아니스트 김영신이 함께한 무대는 모처럼 실내악의 면모를 아낌없이 보여주었고, 약동하는 감동을 안겨준 아름다운 연주로 남을 것이다. **글** 은희찬(전주대 교수)

KIM YOUNG SHIN

